

◎ 高麗大, 의료단 몽골 파견

고려대 의료원은 지난 7월 31일 몽골인민공화국에 백승룡 의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6명의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여 8월 3일부터 9일까지 무료 진료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지원단 파견은 지난 5월말 白 의무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몽골을 방문 △ 몽골 셀링개道 종합병원과의 자매결연 체결 △ 의료진 파견 △ 무료진료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 교환에 따른 것이다. 동교의 이번 몽골 의료지원단 파견은 연세대 의대, 경희의료원에 이어 국내 세번째이다.

◎ 東亞大, 행정제안 시상제 실시

동아대는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행정개선사항 제안 분위기 정착을 위해 '행정제안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제안 시상제는 직원들로부터 △ 소관 업무의 개선사항 △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예산결감 방안 △ 불합리한 규정 및 행정관행 개선사항 △ 기타 학교발전을 위한 행정개선사항 등을 제안받아 시상하고 이후 행정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延世大, 대외협력부총장직 신설

연세대는 지난 7월 20일 재단이사회에서 동문관련업무와 재정확보를 위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부총장직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기획실 산하부서로 있던 발전·동문사무국을 발전협력처로 승격시켜 대외협력부총장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직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대외협력부총장은 승자 총장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현재 14만 명에 이르는 동문간 유대강화, 동교와 동문 간의 협력체제 개선 등의 동문관련업무 및 학부모·계제·사회일반으로부터의 지원금 모금업무 등의 재정확보를 위한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 全北大, 대학발전관련 교직원 아이디어 공모

전북대 기획연구실은 대학발전에 관한 교직원의 아이디어를 지난 6월 초까지 공모하여 제출된 의견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의 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대학발전계획 수립 주요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조직개편에 관한 부총장제 및 연구처 신설, 대학 및 부속기관의 행정실 통합, 유사학과 통폐합 추진, 교수 및 조교 증원. 둘째, 학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관련 학사제도 개선, 학사과정 학사제도 개선, 대학원 학사관리 개선. 셋째, 대학행정의 효율화 추진에 관한 대학의 의사결정, 교수인사관리제도 개선, 행정사무의 대학 분권화 및 전산화, 직원의 전문성 제고. 넷째,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장학금제도 개선, 후생복지시설 확충. 다섯째, 대학연구 지원기관의 육성에 관한 도서관 시설 및 자료 확충과 전산화, 전자계산소 기능 확대, 전산기기 확충 및 전산망 구축. 여섯째, 전략적 중점계획 수립에 관한 우수학생 유치계획, 취업지도의 합리적 대책, 연구체계 확립, 대학발전기금 확충 등이다.

◎ 漢城大, 사립대학 운영·발전정책연구 발간

한성대는 최근 사립대학의 현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한 『사립대학의 운영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93학년도 한성대학교 발전연구의 하나로 연구되었으며,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학운영의 자율화 및 사학발전을 위한 막대한 자원조달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과 대학교육, 대학교육 현황, 사립대학의 발전 저해요인, 사립대학의 중장기 발전모형, 사립대학의 운영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의 운영정상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의 정책제언 논평.